

‘고교교육 기여대학’ 추가 선정… 고대·성대 ‘기사회생’

연대·상명대 4개교 신규 진입
총 68개교에 559억 재정 지원
평균 8억, 재선정 大 일부 삭감
서울대 18억1400만원으로 1위

대학 입시를 통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학을 선정해 정부 지원금을 주는 교육부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던 고려대·성균관대·숙명여대 등이 최종 평가를 통해 기사회생했다. 또 연세대·상명대 등 4개 대학이 신규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추가선정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단순화·투명성 강화를 위해 학교교육 중심의 입학 전형을 치르는 대학을 지원하는 2년(1+1) 단위 사업으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중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가 정해진다.

지난해 선정평가에서 67개교가 선정돼 사업이 진행됐고 지난 5월 중간평가

를 통해 10개교가 탈락하고 57개교가 계속지원 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10개 대학과 신규 신청대학 16개 대학 등 2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사업계획과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대필·허위작성 확인 시 의무적 탈락·입학취소 조치 ▲평가기준 공개 확대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공정성 관련 위원회에 외부위원 참여 여부 등 공정성 관련 4개 지표가 새롭게 반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대입전형에 대해 이해가 높은 대학과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공정하게 실시했다”며 “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대입전형 단순화 등 대학입시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당초 사업계획을 이행하

지 않아 중간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이 탈락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재선정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해 사업에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고른기회전형 선발 인원이 적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바 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면접위주로 운영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는 2018년도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추가선정평가는 올해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다만 중간평가 결과는 대학별 지원금액 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추가지원대학 선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 이후 최종 지원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금은 총 559억원으로 대학당 평균 약 8억원씩이다. 대학별 지원금액은 대학 규모, 채용사정관 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중간평가에서 타락했다가 추가선정평가에서 재선정된 대

학의 지원금은 일부 삭감됐다.

대학별 지원금을 보면, 서울대(18억 1400만원)가 가장 많고, 인하대(15억 4200만원), 동아대(14억 5100만원), 숭실대(12억 8400만원), 명지대(12억 7700만원), 전남대(12억 4200만원) 순으로 많다.

이밖에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 아주대(11억 7900만원), 경기대(11억 5400만원), 경기대(11억 400만원), 중앙대(10억 9000만원), 서울여대(10억 9000만원), 한양대(10억 8800만원), 국민대(10억 5000만원), 가톨릭대(10억 5000만원) 등이 10억 이상의 지원금을 받는다.

중간평가에서 탈락했다가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 재선정된 고려대 지원금은 11억 2500원으로, 당초 사업비(15억 6000만원)에서 4억 3500만원이 깎였고, 성균관대(9억 4000만원 → 8억 1300만원), 숙명여대(7억 9000만원 → 6억 4500만원) 등으로 일부 삭감됐다.

신규로 선정된 상명대는 7억 9000만원을, 연세대는 6억 3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사업 선정 수도권 대학〉 /자료=교육부

대학명	지원금액 (백만원)
서울대	1814
인하대	1542
숭실대	1284
명지대	1277
아주대	1179
경기대	1154
고려대	1125
경희대	1104
중앙대	1090
서울여대	1090
한양대	1088
국민대	1050
가톨릭대	1050
건국대	965
단국대	920
동국대	894
한국외대	838
성균관대	813
세종대	800
상명대	790
인천대	767
서울시립대	737
강남대	730
광운대	724
숙명여대	645
연세대	630
서강대	606
안양대	554
경인교대	255

전쟁기념관, 대만 국기에 中오성홍기 ‘사실검증·기획력 부족’ 국방부 홍보물 논란

웹툰 콘텐츠서도 이미지 실수
외신 “역사 고증 부족” 지적

최근 군 당국이 제작한 홍보물들이 정확한 사실검증과 효과를 낼 수 있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관리하는 전쟁기념관은 최근 중화민국(대만)의 청천백일만지홍기(青天白日滿地紅旗) 대신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의 오성홍기(五星紅旗)를 사회관계망(인스타그램)에 올려, 국내 외로부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화권 언론의 한 기사는 17일 “한국의 전쟁역사를 전달하는 랜드마크인 전쟁기념관의 위상에 맞지 않는 실수”라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도운 공로를 인정 받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장제스 등 5명의 중화민국 위인을 소개하면서 왜 오성홍기를 사용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방부가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와 함께 제작한 특집단편 웹툰에도 중화민국 국기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로 착각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본지 확인결과 국방부는 지난해 국군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웹툰을 홍보하면서, 청색 사각형 바탕의 백색 태양 문양의 청천백일만지홍기를 오성홍기를 연상케 하는 적색바탕의 황색 태양으로 표현했다.

홍보물의 원안이었던 사진은 1940년 9월 광복군 창설식을 찍은 것으로, 사진의 배경에는 태극기와 청천백일만지홍기가 걸려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는 1949년 9월에 채택됐다.

국내에서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오성홍기의 색상과 유사해 착오를 불러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현재 관련 부서에서 홍보물의 원안이었던 사진에 걸린 청천백일기를 수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문제가 된 전쟁기념관의 사회관계망의 오성홍기는 본지의 취재로 인해 지난 14일 홍보물에서 삭제됐다.〈본지 6월14일자 ‘전쟁기념관, 중화인민공화국의 손을 왜 드나’ 참조〉

복수의 외신 군사전문기자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최근 내놓고 있는 홍보물은 고증과 홍보 목적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기획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구직자 “13번 지원하고 서류합격 2번”

사람인, 상반기 입사지원자 1721명
1~5회 지원 가장 많고 34% ‘불합격’

최악의 취업난 속 상반기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올해 상반기 구직자들은 평균 13회 지원해 2번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사람이인 구직자 1721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입사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상반기 평균 12.6회의 입사지원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지원 횟수를 보면 ‘1~5회’(50.6%)가 가장 많았다. 이어 ‘6~10회’(18.4%), ‘11~15회’(8.5%), ‘16~20회’(6.5%), ‘41~50회’(4.5%), ‘26~30회’(3.5%) 등의 순이었으며, ‘51회 이상’이라는 답변도 2.3%나 됐다.

이들의 서류전형 합격 횟수는 평균 2회에 그쳤다. ‘모두 불합격했다’는 답변

이 34.1%로 가장 많았고, ‘1회’(20.3%), ‘2회’(15.5%), ‘3회’(12.5%), ‘5회’(5.9%), ‘4회’(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서류 불합격을 경험한 구직자들은 그 원인(복수응답)으로 ‘학점, 어학점수, 학벌 등 스펙이 부족해서’(44.1%)를 첫 번째로 꼽았다. 스펙 대신 지원자의 직무적합도 및 잠재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업들의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직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스펙’을 불합격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나이가 많아서’(42.4%), ‘자기 소개서를 잘 못 써서’(31.1%), ‘인턴, 대외활동, 아르바이트 등 직무관련 경험이 적어서’(27.3%), ‘채용 기업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부족해서’(16.1%) 등을 불합격의 원인으로 보고 있었다. /한용수 기자

경희대-삼성디스플레이 차세대 연구·인재양성 맞손

‘제2기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출범

경희대학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지난 11일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삼성디스플레이-경희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 협약식’을 개최하고 ‘제2기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를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경희대와 서울대를 비롯해 국내 11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향후 5년간 300여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연구를 통해 풀더블 디스플레이와 고효율 신규 재료 등 차세대 기술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경희대-(주)삼성디스플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희대학교

서울시교육청 “특성화고 진로 설계 도와드려요”

중3 학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385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시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주관하는 ‘2019 중3 학부모대상 특성화고 진학설명회’로 18일 성동공공고 류덕희홀에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앞서 지난달 29일 중3 학부모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진학 설명회에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호응이 컸고, 참석하지 못한 학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열리게 됐다.

설명회에서는 고교 진학을 앞둔 중3

학부모들이 자녀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고교 진로선택의 기회를 주기위해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 70교와 마이스터고 4교의 분야별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안내된다.

아울러 중학교 학부모에게 특성화고 인식 개선과 특성화고 학생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정책 등 다양한 혜택과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이나 선취업후학습 대학 진학 등 성공사례가 제시된다.

서울시 소재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진학 정보와 교육활동, 진로성공사례 등의 정보는 서울시 특성화고 입학·취업 홈페이지 ‘하이잡(high-job.s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